통계 프리즘

2019~21년 분기별 소득 5분위 배율과 평균 소비성향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된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금, 특히 2020년 2분기에 집중적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소득분배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가구의 소득과 소비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살펴봄.[1)2)]

○ 2020년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03배로 균등화 시장소득 5분위 배율 14.38배와 큰 차이를 보임.

- 이 시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어서 국민의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을 목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음.
- 2020년 2~4월에 코로나19의 제1차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5월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도입되었고, 2020년 2분기에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41만 명 감소하였음. 이러한 취업자의 감소가 가구소득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2020년 2분기 가구의 균등화 시장소득이 감소하였음(-4.0%).
- 2020년 2분기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하였으나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한 영향으로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하였음(6.8%).
- 특히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1분위)의 소득증가폭이 고소득층(5분위)보다 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2분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1) 본고의 모든 수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분기별 원자료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결과이며, 가구의 소득과 소비는 가구원 수의 제곱근을 이용하여 균등화한 금액임.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은 2020년에는 1, 2차, 2021년 6월까지 3, 4차에 걸쳐 실시되었고, 2020년 1차 재난지원금(지급규모는 14조 3천억 원, 지급금액은 가구당 40만~100만 원, 사용기간은 5월 13일~8월 31일)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반면, 2차(2020년 9~12월, 지급규모는 7조 8천억 원), 3차(2021년 1~3월, 지급규모는 9조 3천억 원), 4차 재난지원금(2021년 3~6월, 19조 5천억 원)은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금임.

〈표 1〉 2019~21년 분기별 균등화 소득과 5분위 배율(1인 이상 가구)

(단위 : 만 원, 배)

		2019				2020				2021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소득	균등화 시장소득	229	229	235	237	233	219	238	239	228	227
	균등화 공적이전소득	21	18	20	18	23	41	26	22	29	24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221	219	224	228	227	234	231	232	228	222
소득 5분위배율	균등화 시장소득	13.97	11.25	11.24	10.56	14.77	14.38	13.08	11.85	16.20	12.51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6.74	5.74	5.76	5.83	6.89	5.03	5.92	5.78	6.30	5.59

주 : 1)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
사적이전소득=가구간 이전+할인혜택+기타이전소득, 사적이전지출=가구간 이전지출+비영리 단체로 이전
2)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지출,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기초연금+사회수혜금+연말정산환급금, 공적이전지출=경상조세+연금기여금+사회보험료
3) 균등화 시장소득=가구의 시장소득/$\sqrt{\text{가구원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가구의 처분가능소득/$\sqrt{\text{가구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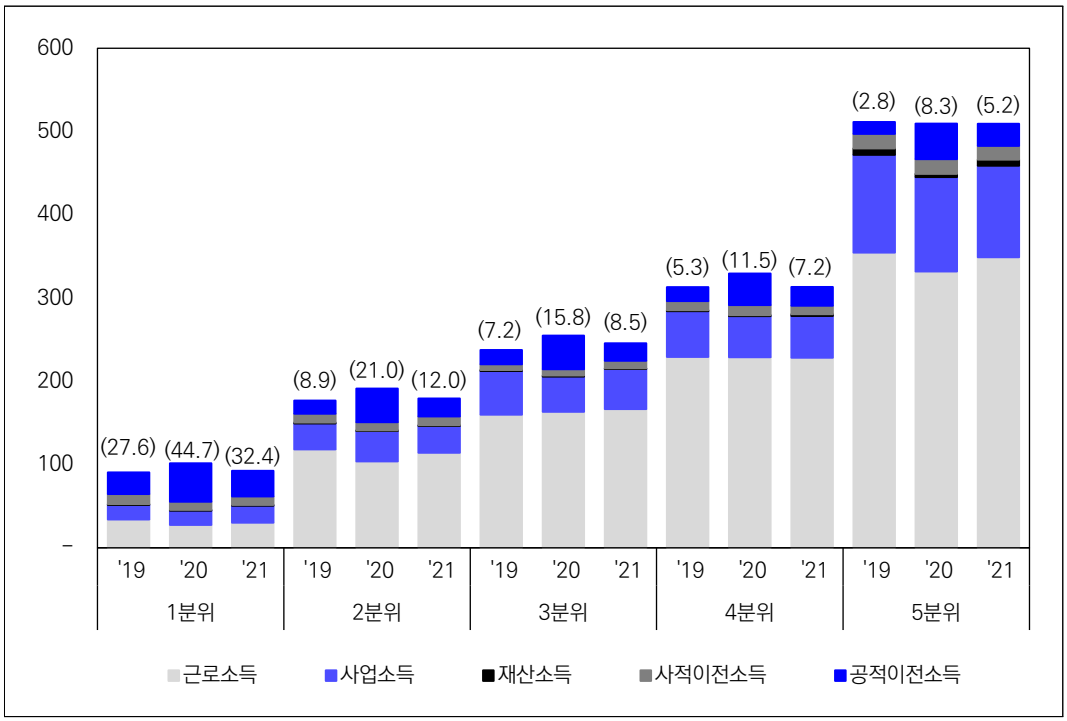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 2021년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9배로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2분기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기저 효과로 공적이전소득의 감소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더 큰 영향을 주어, 2021년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전년동기대비 높게 나타남.
- 2021년 1~6월 기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급된 3,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2019년 2분기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증가한 가운데 5분위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감소한 영향으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코로나19 이전보다 개선된 5.59배로 나타남.

[그림 1]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별 경상소득(1인 이상 가구)

(단위 : 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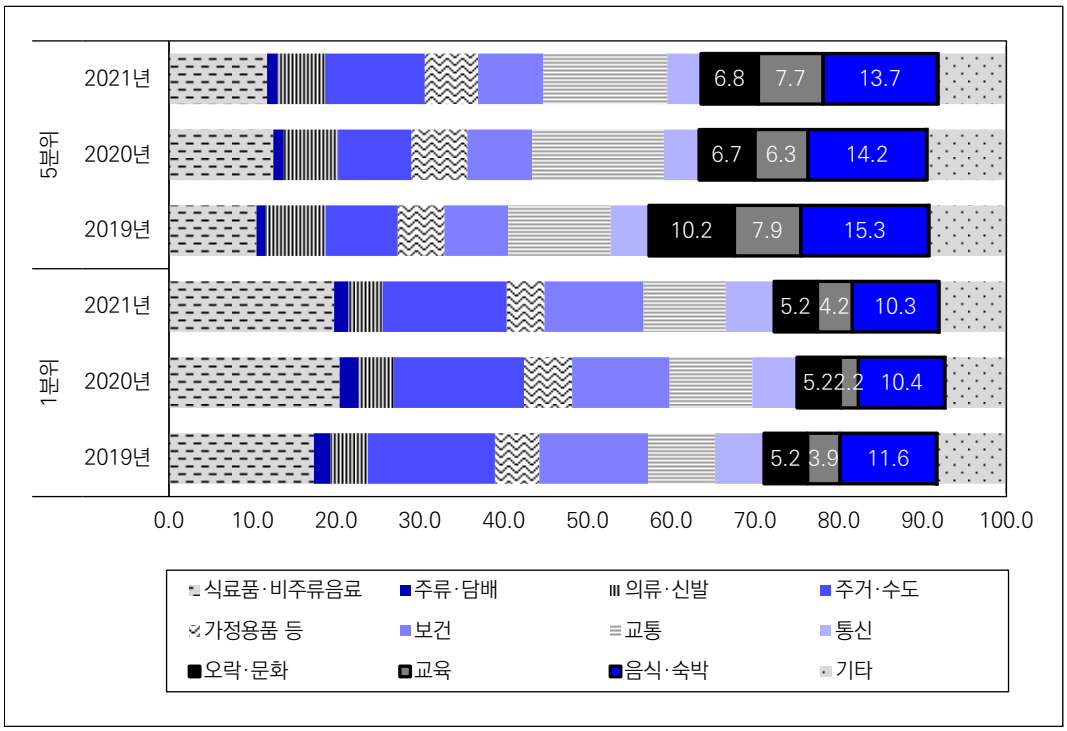
주 : 각 연도 2분기 기준임.
( ) 안은 공적이전소득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소비지출 규모는 대체로 감소함으로써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긴축하는 행태를 보임.

-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교육, 오락 · 문화, 음식 · 숙박 항목에 대한 지출 규모가 크게 감소하여 이 세 항목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2분기 30.3%에서 2020년 2분기 25.2%로 감소하였고, 2021년 2분기에도 26.6%에 그침.
- 특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1분위와 5분위 모두 음식 · 숙박 항목에 대한 지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그림 2] 2019~21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분위별 소비지출 비중(1인 이상 가구)

(단위 : %)



주 : 각 연도 2분기 기준임.
제시된 수치는 해당 항목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 2020년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균등화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하락하였음.

- 특히 소비를 줄이려 해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작은 저소득층에서 평균 소비성향의 하락폭이 컸으며, 고소득층에서는 오락·문화 항목에 대한 지출이 크게 감소하였음.

○ 그러나 2021년 2분기 소비지출은 2019년 2분기에 비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증가보다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평균 소비성향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함.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과 음식·숙박 항목을 중심으로 지출이 감소하면서 2020년 2분기 평균 소비성향이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현저히 하락하였음. 2021년 2분기에는 주류·담배, 가정용품, 음식·숙박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코로나19 이전보다 소비가 증가하여 평균 소비성향이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보다 높아짐.

– 5분위에서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2021년에 코로나19 이전보다 감소하였음에도 소비지출 규모가 주거 · 수도 · 광열과 교통 항목에서 크게 증가하여 평균 소비성향이 상승함. 그러나 코로나19로 2020년 2분기 소비지출이 크게 감소한 오락 · 문화, 음식 · 숙박 항목에 대한 지출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표 2〉 2019~21년 분기별 평균 소비성향(1인 이상 가구)

(단위: 만 원, %)

		2019				2020				2021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균등화 소비지출		167	153	161	159	155	156	158	156	157	159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221	219	224	228	227	234	231	232	228	222
평균 소비성향	전 체	75.4	69.9	72.1	69.7	68.5	66.9	68.5	68.5	68.8	71.7
	1분위	159.4	128.8	142.8	135.1	147.3	115.6	139.2	135.7	146.5	139.0
	2분위	97.8	88.5	91.0	87.6	87.9	83.5	85.5	84.3	88.4	84.6
	3분위	83.5	77.0	77.0	79.4	72.6	69.2	74.6	71.0	73.3	77.8
	4분위	67.2	65.5	65.3	66.2	64.7	64.1	63.9	65.6	66.2	64.9
	5분위	57.0	52.4	54.9	50.1	51.3	51.5	50.5	48.8	49.4	56.3

주 : 평균소비성향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0~21년 6월까지 4차에 걸쳐 실시한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으로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여력은 확대되었으나 교육, 오락 · 문화, 음식 · 숙박 항목의 지출이 크게 줄면서 평균 소비성향이 낮아짐.

–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어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대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대면서비스업에 대한 지출은 여전히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업종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적 고민이 필요함. KLI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